제4회 생명나눔대상에 '한마음선원' 선정

생명나눔실천본부 주최로
11월 22일 중랑구청서 시상
제15회 자선음악회도 열려
장미화·엄영수·신현선 등 출연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제4회 생명나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현대불교 자료사진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이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주최하는 제4회 생명나눔대상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생명나눔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성명용)는 11월 11일 제4회 생명나눔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생명나눔대상은 한 해 동안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그 활동을 널리 알려 더 밝고 깨끗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대상·특별공로상·홍보상·생명상·나눔상 5개 부문으로 수여된다.

대상을 받은 한마음선원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매월 정기 및 일시 기부를 통해 누적 1억원 이상 난치병 환자 치료비를 지원했다. 2025년에는 캄보디아 의료 및 복지 취약계층을 위해 4000만원 상당의 EM생활용품을 기부하기도 했다. 지역 내 저소득층에게 생활지원금, 물품 지원, 지진 피해 복구 성금 기부, 무료 급식, 독거노인 지원,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사회 나눔 활동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별공로상은 마하무용단에 돌아갔다. 2017년 창단 후 매년 지역 복지관, 어르신 효잔치 무료 공연, 불우이웃돕기 봉사 활동, 장기기증자를 위한 살풀이 공연 등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자선음악회를 기획해 티켓 수익금을 난치병 환자를 위한 나눔을 한 점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홍보상은 황재훈 BBS불교방송 라디오국 PD가 받았다. 황 PD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주요 행사 연출을 맡고, BBS불교방송 라디오 '김병조의 이야기쇼'와 '백팔가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생명상은 의대생 자살예방 동아리 따숨(따뜻한 숨결)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 교육을 진행하고 SNS를 통한 자살예방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생명존중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자살예방의 날, 지자체 걷기대회 행사 등에서 자살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나눔상은 조한순 생명나눔실천본부 소속 자원봉사자가 받았다. 1997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전 국민 1인 1장기 기증 등록 운동, 길거리 장기기증 캠페인, 소식지 발송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

성명용 선정위원장은 "본부 사무국이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등 관련 활동 또는 사회봉사 활동을 펼친 사례를 취합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시상식은 11월 22일 서울 중랑구청에서 열리는 제15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율 위의 나눔 춤추는 마음'을 주제로 열리는 자선음악회는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과 이식대기 환자들의 치료비 및 수술비를 모금하고 지원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산하단체인 마하무용단(단장 정현숙)의 한국무용 춤사위와 행복나누리문화예술단의 태권도 시범 공연을 만나 볼 수 있다. 또 가수 장미화, 개그맨 엄영수, 소프라노 신현선, 소리꾼 이장학이 특별출연해 무대를 한층 풍성하게 채운다.

본지 '無장애 불교' 불교언론문화상 우수상

조계종, 11월 12일 프레스센터서
제33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
대상은 BBS부산 '간화선'이 수상



11월 12일 열린 '제33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아래 오른쪽 두번째가 본지 임은호 기자.

임은호 현대불교신문 기자의 기획보도 '無장애 불교'가 제33회 불교언론문화상 언론보도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제33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불교언론문화상은 한 해 동안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에서 불교문화 우수성을 알리고 건강한 사회발전에 기여한 작품 및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 편의 기사, 한 장면의 영상, 한 번의 기획이 불교의 정신을 세상 속에 살아 숨 쉬게 했다"며 "자비의 메시지로 분열의 시대를 어루만지고, 지혜의 언어로 혼탁한 현실을 맑히며,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대중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한 그 헌신과 열정에 깊은 찬사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첫 주관을 맡은 미디어홍보실 실장 덕안 스님은 "앞으로도 불교의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이고 감동적인 콘텐츠가 더욱 많이 탄생해 불교문화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불교언론문화상 언론보도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임은호 기자의 기획 보도 '無장애 불교'는 사찰이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불편하다는 인식을 낮추고, 고령자·장애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소개했다. 또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한 모범 사찰을 조명하고, 이웃 종교 사례와 비교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상세히 보도했다.

올해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는 BBS부산불교방송의 특집 다큐멘터리 5부작 '한국인의 수행법, 간화선'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우수상 방송부문에는 KBS 다큐온의 '봉녕사 수행일기'가, 라디오부문에는 MBC의 '여성시대 양희은 김일중입니다-님과 함께 영혼의 바캉스 특집'이, 언론보도부문에는 BTN의 BTN뉴스 기획보도 '명상, 이젠 알고 하자'가, 뉴미디어부문에는 유튜브 마음 울리는 선율과 지혜의 '천수경 뮤직 비디오'가 각각 수상했다.

또 현대불교신문의 '무장애 불교', 울산MBC의 3부작 다큐멘터리 '바실라-1300년 유라시아 문명교류탐사', BBS불교방송 특집 '마음 디코딩'이 우수상을, BBS대구불교방송의 '팔공산 은해사 시절인연', KBS의 '연애보고서 나는 절로', MBC의 '문화유산의 축복이 끝없는 경주-천년 동안 엎드려 있던 불상 미스터리'가 특별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류지호 (주)불광미디어 대표이사가 불교언론인상을 수상했다.

글=김내영 기자 · 사진=송정인 수습기자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페스타

11월 7일, 서울 정토회관서 개막
법륜 스님 즉문즉설로 청년 소통
무소음 디제잉·조인성 강연 이어



정토회가 11월 7일 서울 정토사회문화회관에서 '2025 청년페스타-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움직임'을 개막했다.〈사진〉 '이제는 K-불교다'를 슬로건으로 한 '청년페스타'는 전통 불교문화에 청년세대의 감성과 힙한 라이프 스타일을 결합한 '힙(Hip)불교' 축제로 11월 9일까지 진행됐다. 청년세대와의 진솔한 대화부터 마음치유, 평화, 환경, 예술, 음악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면서, 청년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3일간 이어진 이번 축제 개막식 무대에 오른 법륜 스님은 청년들에게 '기운'을 주고 싶어 청년페스타를 열었다고 했다.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취업도 어렵고, 높은 집값에, 자살률도 높고, 은둔고립 청년도 많다"고 안타까움을 전한 법륜 스님은 "청년이 미래 우리사회의 주인이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장을 꾸려 청년에게 위로와 각성, 희망을 건네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년페스타는 특히 청년들이 중심이 돼 기획한 것으로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축제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정토사회문화회관은 지하 2층부터 15층까지 청년들이 진행하는 강연과 공연, 먹거리·체험 부스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11월 8일에는 방송인 김제동과 김예지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강연과 무소음 디제잉 파티, 청년 공감 연극 등이 진행됐다. 11월 9일에는 폐막식에 앞서 배우 조인성의 강연이 이어졌다.

임은호 기자 · 송정인 수습기자

제22회 대원상에 법상 스님·은장권 이사장

대한불교진흥원, 수상자 발표
오는 11월 21일 시상식 개최


법상 스님


은장권 이사장

제22회 대원상 특별상 수상자에 목탁소리 지도법사 법상 스님과 은장권 사단법인 함께하는세상 이사장이 선정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구상진, 이하 진흥원)은 "제22회 대원상 심사위원회의를 열고 최종 수상자를 선정·발표한다"고 11월 12일 밝혔다.

출가 부문 특별상은 법상 스님이, 재가 부문 특별상은 은장권 이사장이 수상했다. 해외에서 학업과 수행에 정진 중인 스님들을 지원하는 특별 정진상에는 정은 스님(인도 다람살라 체니 다창 무종파 지도자 과정)과 지묘 스님(일본 하나조노대학대학원 석사 과정)이 각각 선정됐다.

법상 스님은 20여 년간 군 장병 포교에 헌신해 왔다. 또한 인터넷 마음공부모임 '목탁소리' 지도법사로서 젊은 불자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군승 소임을 마친 후에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는 명쾌한 법문을 펼치고 있다.

진흥원은 "법상 스님은 깊이 있는 사유와 통찰을 통한 저서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시대 언어로 재해석하여 전파함으로써 현대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은 이사장은 불교의 자비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구불교호스피스센터'를 창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국제구호지원단체인 '함께하는세상'을 설립하여 국내외를 아우르는 구호 활동을 펼쳐 오며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시상식은 11월 21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열린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부탄, 세계평화 기원 대기도회 개최

11월 4~17일, 왕실 주최로 진행
세미나·수계식·사리 이운도


기도회에 참석한 스님들에게 인사하는 부탄의 현 국왕(좌)과 선왕(우). 사진출처=페이스북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에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대기도회가 개최됐다.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부탄의 수도 팀푸에서 열린 기도회는 부탄의 4대 국왕 지그메 싱계 왕축 국왕의 칠순을 기념하며 열렸다. 전 세계 사부대중이 모인 이 행사를 해외 불교전문 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을 비롯해 '더 힌두', '더 트리뷴' 등의 해외매체들이 특별보도했다.

부탄 왕실에서 주최한 13일간의 대기도회에는 테라와다와 대승불교 등 모든 불교 종파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부탄의 모든 불교 원로 스님들과 티베트 불교 4대 종단의 대표와 테라와다 각 교단의 대표 스님들이 함께 기도를 이끌었다.

주최 측은 "이 대기도회는 전통 불교의례를 현대적이고 세계화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어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부탄의 총리 체링 톱게이는 기자회견에서 "이 기도회는 왕실의 비전에서 비롯됐다. 국왕은 부탄 전통불교인 금강승의 전통에 뿌리를 둔 우리의 영적유산을 기반으로 한 세계평화기원 기도회를 선왕의 칠순을 기념하는 특별한 시기에 개최하라고 명했다"고 기도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11월 4일 오전, 기도회는 부탄의 랜드마크인 석가모니 대불이 서 있는 쿤셀포당 사원에서 시작됐다. 여러 악업와 장애를 정화하는 '잡시 되촉(Jabzhi Dhoechog)' 이라는 의식이 제켄포의 주도하에 각 불교계 대표들과 함께 봉행됐다. 잡시 기도가 진행되는 시간에 맞춰 팀푸 시내의 창리미탕 사원에서는 사부대중들이 함께 세계평화 기도회를 봉행했다. 기도는 영어, 티베트어, 종카어 등 여러 언어로 진행됐고 동시통역이 함께했다.

이번 기도회는 단순한 기도뿐만 아니라 각 세계불교와 관련된 학술세미나, 전시회, 관정법회, 수계식 등이 함께 진행됐다. 기도회를 위해 인도 정부는 최근 러시아에서 귀환한 피프라와 스투파의 불사리를 부탄에 특별히 전달해 전시했다. 불사리와 함께 부탄왕실은 왕실 법당 등에서 보관해 온 여러 불사리와 불상 등 여러 성보들도 함께 공개했다.

특히 주목을 받은 행사는 부탄 비구니 재단의 교육과 지원 하에 제 켄포 스님을 전계사로 하는 비구니 수계산림이다. 전계에서 모인 티베트 불교권 250여 명의 사미니 스님들이 비구니 구족계를 수계했다. 이는 부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비구니 수계산림으로 의미를 더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캄보디아에 정수시설 '희망선물'

11월 7일, 로터스월드·만수사
1200명에 깨끗한 식수 제공



불교국가의 빈곤퇴치에 힘쓰고 있는 국제개발협력단체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가 군포 만수사(주지 다래 스님)의 후원으로 캄보디아 아동들을 위한 정수시설을 설치하며 학생뿐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희망을 선물했다.

최근 연일 보도되고 있는 캄보디아 사회 불안 소식으로 원조 사업이 축소·중단될 위기에 몰린 가운데, 무고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염원하며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뤄낸 지원이라 의미가 크다.

로터스월드는 11월 7일 캄보디아 시엠립 주 프레야꼬 트마이(Preah Ko Thmei) 초등학교에서 '맑은물 정수시설 기증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를 통해 1200여 명의 학생과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시엠립 지역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캄보디아 사회 불안 소식과 달리, 평화롭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과 아이들이 밝은 미소로 일상을 이어 가고 있다. 이번 정수시설 설치로 지역의 위생환경과 교육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기증식에서 만수사 주지 다래 스님은 "깨끗한 물은 생명의 근본이자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며 "오늘의 정성이 모연 동참자들의 삶도 맑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콘 짠와띠 어린이가 학생대표로 감사 편지를 낭독하며 "이제는 아플 걱정 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만수사 스님과 신도들은 이날 전 교생에게 교복과 학용품 세트, 가방 등을 전달하며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증식 후에는 '만수사 맑은물 급수대' 제막식과 더불어 생명력과 번영을 상징하는 피콕꽃 나무 기념식수로 양국 우정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임은호 기자



대불련, 고3 수능 응원 "내년에 만나요"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유주연)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전국 14개 불교종립 고등학교 파라미타 고3 수험생 500명에게 수능 응원선물을 전달했다. 선물은 비타민과 홍삼, 초콜릿 등 간식을 비롯해 핫팩, 굿즈 등 10가지 물품으로 구성됐다. 대학 진학 후에도 불교 활동을 이어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 불교동아리가 있는 대학 목록과 함께 '대입합격 수능대박' 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도 첨부됐다. 임은호 기자